

# 나주시 천연염색 천년의 비파



News Letter of the Naju Foundation of Natural Dyeing Cultural

June 2008

## 전통염색, 그 그림의 문화

요즘, 우리나라는 전통 염색문화가 매우 활발하며, 급속히 번져가고 있지만 동남아, 중국, 인도 등의 전통염색문화는 사라져 가고 있다. 물론 그곳 소수 부족의 경우 오지일수록 더욱 그들의 옛 것이나 자연과 전통문화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곳도 역시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고 다만 기능만이 살아 있는 실정이다.

우리를 돌아보아도 많은 전통이 5, 60년대의 혼란과 어려움, 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편의주의와 함께 사라져갔다. 기능만 남아 있고 생활에서는 없어진 것이다.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었는가. 돈 안 되고 힘들기만 한 것을 누가 어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는 좀 풍요로워져서 전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났고, 전통적인 것을 다양화, 대량생산, 기술향상 등을 통해서 현대화하고 대중화해 가고 있다. 그로 인한 수익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룩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옛 그대로의 傳統을 21C에 原型대로 진행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원형이 있을 때 그것을 근간으로 응용 등을 통해 현대화 작업이 되리라 여겨진다. 또한, 급속히 변해가는 고속사회에 그림의 전통문화는 공원의 의자처럼, 산속의 웅달샘처럼 심의 장소, 여백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물질, 돈이라는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크나큰 가치가 있다.

21C 대안 중 하나는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라도 그 무리에 의해 뼈대에 지친 이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통은 그림으로 그 의미가 있다. 전통적 작품의 실용성이나 상용성에 대한 논란이나 현대적인 기준에서의 작품성의 가치를 떠나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옛 물건들을 보면, 그 물건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별것 아닌 소나무 판자 하나도 값이 느껴진다.

오래된 마루 판자 하나를 보면 거기에 난 용이 자국, 칼자국, 탄 자국, 줌먹은 자국, 못 자국, 얼룩 등의 여러 자국들이 있지만 크게 흠이라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 작가가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오랜 시간동안 하나하나 작업을 통해 만든 작품같이 여겨진다. 그 흠집에서 어떠한 애기가 느껴진다.

급속히 이루어진 것과 오랜 세월 풍상 속에 이루어진 것의 차이는 분명 있다. 급속히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산뜻하고 쉽게 접해오면서 그 맛이 있지만, 오랜 인고의 세월 속에 쓰여 지며, 혹은 방치되며 사람과 자연이 공동 작업된 전통은 그 맛에 깊이가 있다. 사람의 손이 적게 가고, 시간과 자연이 만든 작품이 최고라 여겨진다. 전통은 오랜 시간과 자연, 그리고 人間의 적절한 調和로움으로 우리 生活 속에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섬과 평안함이 흐른다.

어느 시기에는 염색을 누구보다 잘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그 자체를 얼마나 느슨하고 온전히 누리며 즐겼느냐는 것이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평가받아 얼마의 값이 매겨지는 것도 좋지만, 온전히 내 안의 충분한 행복을 얻어 누리야 한다.

요사이 흔히 하는 말로 돈, 명예, 권력이 많으면서 건강치 못하고 행복치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하나의 작업을 통해 밝은 향에 긴 여행을 하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작가 프로가 되는 것이다. 그때 나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원 전통염색직조학교 대표  
土 壁 정옥기

# 발효 감물 만들기와 염색



## 발효감물이란? ○ ●

발효감물은 익지 않은 푸른 감을 갈아서 발효시킨 것을 눌러 짜서 얻은 액즙(液汁)을 가리키거나 푸른 감의 즙액을 채취하여 발효(發酵)해 1-3년간 숙성시킨 것이다. 이 액즙에는 tannin 또는 shibuol이라 불리는 복잡한 구조의 고분자 화합물을 많이 함유되어 있다.

## 발효감물의 특징 ○ ●

감물에 포함되어 있는 탄닌함량은 일반적으로 녹숙기의 감에는 0.3% 정도인데 비해 발효감물에서는 3-5%로 증가한다. 또 발효감물은 pH는 3.1-3.5정도로 낮아지며, 발효감물로 염색한 원단은 생즙으로 염색한 것에 비해 부드러운 편이며, 복합염을 하기에 좋은 점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감물의 보관측면에서도 기존의 감물은 미숙감에서 감즙을 착즙 후 지온저장고에서 저장해야했기 때문에 저온저

장고 시설이 필요했지만 발효감물은 상온에서 발효와 숙성 및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발효감물 만들기 ○ ●

우리나라에서 발효감물을 만드는 방법을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각 가정에서 행해진 발효감물 제조방법들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제조 공정을 기계화하고 있다. 일본의 각 지역이나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해 온 제조 방법들은 물의 첨가 유무 등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공정을 소개하면 <그림 1>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다양한 시도가 되고 있으며, 그 중의 한 방법을 소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일본에서 발효감물 제조 공정(수집, 2000)

감의 수확	8월 중하순
파쇄	5시간 이내
착즙	즉시
물의 첨가	파쇄즉시 과실중량의 65%
발효	28℃에서 2일간 행한다
착즙	
재발효	28℃에서 6일간
숙성	은실의상온
원성	

<그림 2> 발효물감을 만드는 과정

감의 수확	8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파쇄	5시간 이내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	파쇄기에 분쇄물이 잘 빠지지 않을 경우 물 10% 정도 첨가
착즙	양피망에 넣어 착즙(달수기 또는 손으로 행한다)
즙액을 고무통에 넣음	기둥 넣는다
고무통에 넣은 즙액에 발효촉진균 넣음	효소 또는 전년도 발효감물
고무통 입구를 천으로 덮음	이물질 유입 방지 위해 고무통 입구를 천으로 덮는다
발효	상온상태에서 행한다
숙성	6개월 정도 행함(2~3개월 정도 되면 쓸 수 있음)
저장	상온 또는 서늘한 곳에서 저장

●●● **노동부 지원 “지역 고용 인적자원 개발사업”  
2차년도 사업 실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2008년도 지역특화 인력 양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2007년에 이은 2차년도 사업으로, 지난 4월 초부터 교육생 모집에 이어 천연염색 전문인력 양성교육(초급 50명, 중급 20명)으로 11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 **제8회 경남천연염색협회전**

경남천연염색협회에서는 2008년 5월 1일(목)부터 6일(화)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연 그대로”하는 주제로 협회전을 가졌다. 경남천연염색협회 소속작가 22명이 참여한 이 전시는 천연염색을 한 직물로 만든 생활소품에서부터 의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와 장르의 작품을 전시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나주 천연염색 기술개발 박차”**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농림부 2009년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에 “나주 쪽 전통기술 산업화”라는 주제로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2009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진행되며 제품개발·생산·가공·마케팅 등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나주시는 쪽 추출 현대화시설 및 천연염색 공방공간도 신축하여 지원하기로 해 나주시에 천연염색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 **천연염색 하계 특수분야 교원직무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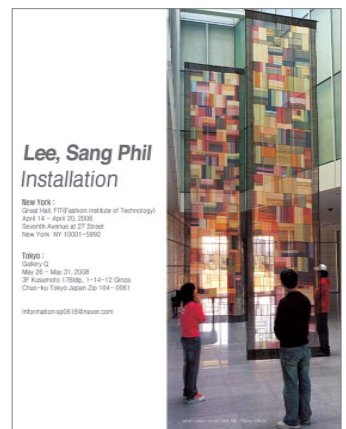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2008년 7월과 8월에 천연염색분야의 하계 특수분야 교원직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 5조 동 시행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2006년부터 하계와 동계 특수분야 교원직무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실시할 분야는 “천연염색을 이용한 상품디자인”과 “전통을 찾아가는 우리 천연염색”으로 모집인원은 각각 30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홈페이지(naturaldyeing.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수과정명	교육기간(명원)	주요내용
천연염색을 이용한 상품디자인 (60시간 / 연수비150000원)	'08.7.28 ~ 8.8 (30명)	천연염색(린, 무지개 염료, 물들이기 한지를 이용한 천연염색, 천연염유를 이용한 패션소품 만들기, 전통 이미지를 활용한 생활소품 만들기 등
전통을 찾아가는 우리 천연염색 (60시간 / 연수비150000원)	'08.8.11 ~ 8.23 (30명)	천연염색의 기본, 전통 미염제를 이용한 천연염색, 전통 직물의 특성 및 천연염색, 오방색을 활용한 천연염색, 전통과 현대의 천연염색



●●● **이상필교수 미국과 일본에서 작품전**

동신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상필교수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뉴욕 Great Hall에서 천연염색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뉴욕에 이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일본 Kusumoto Gallery Q에서도 천연염색 작품을 전시하였다.



### 천연염색과 함께하는 나주 소풍



천연염색 체험도 하고 젓갈쇼핑 및 새싹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관광상품이 개발되었다.

오전에 “주몽” 촬영지로 유명한 나주 삼한지테마파크 관람 후 국내 최대 규모의 금광토굴 젓갈쇼핑(금광이었던 토굴을 개조해

젓갈을 발효시키는 인공 굴)을 하고 점심식사는 영산나루 새싹비빔밥을 먹고 나서 영산강 뱃길따라 황포돛배를 타고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 도착한다. 천연염색 손수건 및 스카프 체험을 하고 하루를 마감한다. 체험은 10명 이상 예약하면 된다. (문의 061-335-0091).

### 유아복과 원아복 전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천연염색 의류의 홍보 및 소비확대 측면에서 2008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2008년도 제 1회 기획전시회를 가졌다.

“어느 봄날에”라는 주제로 진행된 2008년도 1회 기획 전시회는 유아복과 원아복 30여점과 성인복 10여벌 그리고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을 염재로 활용한 스카프 전시를 겸하였다.



### 천연염색 유물 및 작품 기증 접수 중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 전시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유물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기증대상 유물 및 작품은 천연염색과 관련된 것들이며, 관련자료와 유물은 무상기증과 기탁을 조건으로 하며, 기증 및 기탁자들에게는 감사패, 문화관 행사 초청 및 자료제공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61-335-0091).

### 천연염색 교구 쇼핑몰 큰 호응 얻어

초·중등학교 및 천연염색 관련 단체에서 천연염색수업이나 취미 생활에 필요한 천연염색 교구를 클릭 한번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쇼핑몰(www.naju1000co.kr)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쇼핑몰의 호응이 좋음에 따라 천연염색 전문서적 등을 비롯해 다양한 교구를 추가로 준비하여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발행인 : 신정훈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이사장, 나주시장이 사 : 김오재, 김왕식, 이상필, 정관채, 정경진, 장흥기, 홍철식 편집인 : 장흥기, 허복구, 김윤희, 이재연, 최정락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NAJU FOUNDATION OF NATURAL DYEING CULTURAL

(우.520-931)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163번지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사무실 Tel. 061-335-0091, 335-0098, Fax. 061-335-0092 판매장 Tel. 061-335-0160 http://www.naturaldyeing.or.kr